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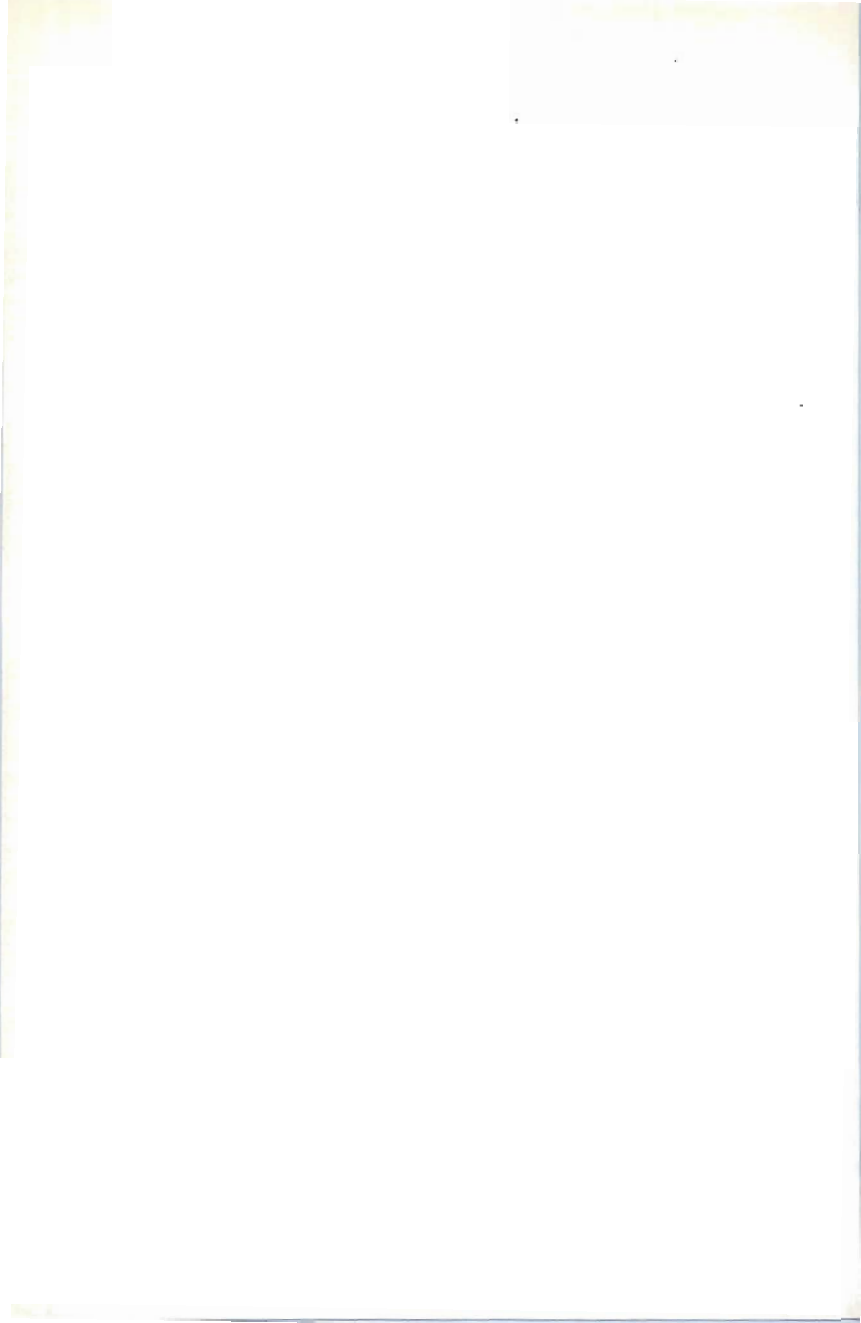
5

2004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역대하 · 디모데전서 · 에스라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총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5

충현의 만나

2004

가정예배 역대하 · 디모데전서 · 에스라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도제목

1.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고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모든 교회 일꾼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4.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교구가 성장하여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5.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힘있게 하시고, 5부예배를 통하여 젊은 일꾼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소서.
6.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저희를 써 주소서.

감 사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주께 찬양하리라.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리라.
아, 놀라워라. 주님이 행하신 일들...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심령
백성에게 친히 주셨음이라.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

힘들게 씨름하며 시작한 한 해
벌써 네 달이 지나고 오월로 접어들어
화사한 봄꽃보다 아름다운 주님
우리 맘에 비치사 주의 영광 알게 하셨네.
씨름하며 눈물로 간구하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영혼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네.

아, 놀라워라. 주님이 행하실 일들...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합 3:2).
주의 백성에게 이미 주신 거룩한 열심
불같이 타올라 온 세상에 번져
십자가 복음 널리 전파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치 않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확신하며 복음의 길로 달려가는 성도 여러분의 모습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제게는 복음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봄꽃보다 더 아름답고 귀하게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2004년 5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 성 관

에스라 서론

에스라서는 그 내용을 크게 둘로 구별해볼 수 있다. 첫째는 성전 재건의 역사이니(1-6장). 약 70년의 세월동안 포로 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안정을 누리던 때였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잃었던 신앙을 되찾고자 모든 것을 버리고 과감히 귀환길에 오른다. 유대 땅으로 돌아온 그들은 제일 먼저 제단과 종교적인 절기들을 회복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복구사업을 시작한다. 수많은 반대와 방해가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스 4:6) 말미암아 마침내 성전은 재건된다. 이 때 중심적인 지도자는 스룹바벨이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로우심이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정한 기한(70년)이 차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키기를 시작하신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허문과 연약함 속에 있었지만, 그들에 대한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로우심을 주목해 보도록 하자.

둘째로, 거룩한 예배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해 보자. 본국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신령하고 거룩한 예배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가?

셋째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면 언제나 반대와 핍박에 부딪히게 된다는 사실이다. 성전 재건사업은 여러 가지 반대와 핍박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성전은 재건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려하면, 언제나 크고 작은 반대나 핍박이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 본서에서 잘 배우도록 하자.

두 번째의 주요 내용은 에스라에 의해서 진행된 자체 개혁이다(7-10장). 제1차 귀환후 81년만(B.C. 457년)에 에스라는 소수의 무리를 데리고 귀환한다. 이 때 백성

출판사 | 서울특별시 | 2018년 1월 1일 발행

들의 영적 상태는 극도로 혼탁해져 있었다. 에스라는 이런 백성들의 상태를 율법의 말씀에 입각하여 개혁시킨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죄의 회개와 영적인 부흥은 재건된 성전과 더불어 귀환한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우리 인간의 부패함을 주목해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 본국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성전 재건을 위하여 뜻을 모아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자 백성들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죄악된 생활에 익숙해졌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배은망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깊이 낮추도록 하자. 정말이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둘째로, 영적인 개혁과 부흥은 언제나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설 때,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깊이 있게 보게 되고 그리하여 회개와 각성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 기도하자.

내용분해

1. 스룹바벨 인도 하의 1차 귀환 1:1-2:70 3. 에스라 인도 하의 2차 귀환 7:1-8:36

(1) 1차 귀환의 배경 1:1-10

(1) 2차 귀환의 배경 7:1-28

(2) 1차 귀환자 명단 2:1-70

(2) 2차 귀환자 명단 8:1-14

(3) 귀환 과정 8:15-36

2. 성전 재건 사역 3:1-6:22

(1) 성전 기초 건축 3:1-13

4. 이스라엘 백성의 개혁 운동 9:1-10:44

(2) 성전 건축에 대한 방해 4:11-24

(1) 민족적 회개 9:1-10:1

(3) 성전 건축 재개 및 완공 5:1-6:22

(2) 개혁 단행 10:2-44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죄악된 본성을 지닌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참으로 힘듭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 동맹함으로 인간의 부패함과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선견자 예후를 보내어 크게 책망하십니다(2절). 그러나 여호사밧에게는 칭찬을 들을 만한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점입니다(3절).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의 잘못된 점과 옳은 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그것에 따라 각각 책망과 칭찬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도록 하십시오.

무엇이 진정한 회개입니까?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돌아와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회복을 경험한 여호사밧은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행합니다. 첫째는, 모든 백성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한 것입니다(4절). 둘째는 재판관들에게 소명 의식을 분명히 가르친 것입니다(6절). 또한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과 제사장과 이스라엘 족장 중에서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들과 재판을 담당하게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순종하여 섬기는 사람들, 곧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십자가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끌고다로 가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기도 제목 / ① 죽는 그 순간까지 말씀 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여호사밧은 큰 곤경에 처했습니다.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여호사밧을 공격하기 위하여 한꺼번에 몰려왔기 때문입니다(1절). 여호사밧은 이 큰 문제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는 얼굴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간구했을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여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도록 했습니다(3절). 여호사밧이 기도를 통해 의지했던 하나님은 모든 만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6절)요 환난 중에 부르짖는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넉넉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셨습니다(7절). 여호사밧은 “우리는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기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12절 참고)라고 간구했습니다. 이렇듯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히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을 통하여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의 간구에 응답하셨습니다(14-18절). 야하시엘을 통하여 들려진 음성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너희는 두려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15절 참고). 이에 여호사밧은 힘을 얻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20절 참고). 전쟁은 어떻게 할 줄도 모르며 능력도 없었던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호사밧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긍휼과 은혜 가운데 여호사밧을 품어주셨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런 여호사밧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삼아 주신 것을 찬양하십시오.

기도 제목 / ① 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소서. ② ‘위임목사님’ 이 복음만을 전하는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여호사밧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여호람의 악정 때문에 유다는 암흑기로 들어갑니다. 성경은 여호람의 통치를 가리켜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6절)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습니다(7절). 여호람의 악행은 하나님께서 도무지 참아주지 못할 심각한 죄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다윗에게 세워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하여 공물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람을 돌이키기 위하여 에돔과 림나의 반역을 통해 분명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악행을 계속합니다. 아예 백성들까지 미혹하여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산당을 세우도록 부추겼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도 이처럼 완악해져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적셔져서 늘 부드러운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여호람은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람을 치셨습니다. 여호람은 창자에 고칠 수 없는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19절). 그의 고통과 죽음은 비참했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그의 죽음에 백성들이 분향도 하지 않았고, ‘아끼는 자 없이’(20절)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회개치 않는 죄인의 최후 결말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본래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더라면, 우리 모두 다 비참한 죽음, 곧 지옥의 영원한 사망 속에 던져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고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서 참 평안을 누리십시오.

기도 제목 / ① 넘어질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서게 하소서 ②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담당자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준비된 헌신이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최대 위기는 아하시야와 아달라의 폭정이었습니다. 본 장은 아합의 집을 가리켜 '패망케 하는 아합의 집' (4절)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 아합의 집을 그대로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 아하시야였습니다. 아합이 그 백성을 패망으로 인도하였던 것처럼, 아하시야 역시 그 백성을 패망으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아하시야가 뿌린 악행의 열매는 그가 죽은 후 그의 모친 오르리의 손녀 아달라를 통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아하시야의 모친 아달라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10절). "죄의 값은 사망이요..." (롬 6:23) 라는 말씀처럼 아하시야의 죄악으로 멸망과 패망이 임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구속의 역사를 방해하려는 사단의 꾀방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장차 예수님이 다윗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터인데, 다윗의 씨를 진멸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계획과 모략에 의해 중단되거나 포기되지 않습니다. 아달라는 유다 집의 왕의 씨를 진멸하였고 이후 육 년 동안 다윗의 왕국을 바알과 아세라 신의 왕국으로 변질시켰습니다. 아달라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은밀하고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입니다. 그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 여호사브앗에 의해서 극적인 구출을 받아 하나님의 전에서 양육을 받아 나중에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렇듯 극심한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총의 씨앗을 남겨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윗의 씨앗인 예수를 통하여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찬송하십시오.

기도 제목 / ① 죄악 세상에서도 늘 예수만 찾게 하소서 ② 총현 교회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세우는 능력과 생명의 말씀입니다. 본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여호야다 한 사람을 통해서 무너졌던 유다가 다시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야다는 아달라의 폭정에서 유다를 구하기 위해 백부장과 레위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족장들과 언약을 체결하고, 숨겨 놓은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2,3절). 이 일에 동참한 사람들은 왕자 요아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며 율법책을 줍니다(11절). 이렇게 하여 왕이 된 요아스는 타락한 나라를 여호와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웁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회복케 하는 통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때,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갈 때, 그 때 회복과 개혁과 부흥이 있습니다.

우리는 역대하 21-22장을 읽으며 여호와와 말씀이 희미해진 세상의 혼란과 폭정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와와 말씀이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얼마나 놀라운 개혁과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는지 보게 됩니다.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우선, 그는 백성들과 언약을 세워 그들이 여호와와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16절). 둘째는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바알의 당을 훼파하고 우상들을 제거하며, 바알의 제사장인 맛단을 죽였습니다(17절). 셋째로, 무너진 성전 예배를 모세의 율법대로 회복시켰습니다(18-20절).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혁이 이루어지자, 온 국민은 크게 즐거워하고 성중에는 평화가 다시 찾아왔습니다(21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십자가 복음의 말씀으로 지배받을 때에만, 참된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다.

오직 말씀이신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참 안식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주의 말씀의 온전한 통치를 받게 하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요아스가 처음으로 개혁을 시도한 일은 성전 수리였습니다.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라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깨뜨리고 또 여호와와의 전의 모든 성물을 바알들에게 드렸음이었더라”(7절). 그러나 요아스의 마음만 급했을 뿐, 실무자인 레위인들은 그 일에 마음을 쏟거나 서두르지 않았습니다(5절). 그래서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성전 수리를 재촉하게 됩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에 요아스는 성전에서 관심이 떠난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9절)고 명령합니다. 요아스가 추진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혁 정책을 펼치자 여호와와의 전은 수리되고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14절). 겉으로 볼 때 이 일을 이룬 것은 요아스의 열심인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룬 것입니다.

본 장에는 안타까운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경건하고 선하던 요아스 왕이 하나님의 사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는 기록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 왕은 여호와와의 전을 버렸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며 폭정을 행합니다. 더 나아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그의 망령된 행동을 책망하자 ‘여호와와의 전 뜰 안에서’ 그를 돌로 쳐 죽이는 만행을 자행합니다(20, 21절). 은혜를 저버리고 여호와를 버린 요아스 왕!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를 사용하여 그를 징계하셨습니다(23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일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히3:14절).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참 복입니다.

기도 제목 / ① 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굳게 잡게 하소서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요아스가 죽자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마샤는 먼저 나라를 튼튼하게 세운 후에 자신의 부친을 모반하여 살해했던 자들을 처형합니다(3절). 이 때 아마샤는 반역자들의 목숨만 빼앗았을 뿐, 그들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4절). 당대의 관습보다 여호와와의 말씀을 기억하여 실행하려는 아마샤의 믿음이 엿보이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런 아마샤도 잘못 판단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전쟁을 위하여 돈을 주고 군대를 빌려온 것입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마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잘못을 알려주시고 바른 길로 친히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 데려온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유다 백성들만으로 전쟁을 치르라고 명하십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결과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친히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아마샤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샤가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경배하여 분향한지라”(14절). 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어 아마샤를 책망하셨습니다(15절). 아마샤를 옳은 길로 돌이키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회개하지 않았고, 애돔의 신을 자기의 신으로 신뎠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채찍을 드셨고, 마침내 아마샤는 모반으로 비참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27절). 이런 실패를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복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십자가 안에서만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늘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 안에 거하게 하소서. ② 모든 예배와 집회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거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최후 결말을 보게 됩니다. 웃시아 왕의 아버지였던 아마샤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말년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비참한 생애를 보냈습니다. 웃시아는 그러한 아버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의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대하 26:5). 다시 말해서, 스가랴가 세상을 떠나자 웃시아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지만, 웃시아가 하나님을 구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아래 웃시아는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대적들의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나라를 튼튼하게 세웠습니다. 놀라운 기계를 만들어서 성위에서 화살과 무거운 돌이 멀리 날아가게 하였습니다.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라”(15절).

그러나 나라가 강성해지자 웃시아의 마음은 극도로 교만해졌고 그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직접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는 제사장을 세우신 하나님을 무시한 오만불손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엄히 매를 들어 그를 징벌하셨고, 그 결과 그는 문둥이가 되어 다시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강성하여 지매’라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성공과 부와 명예가 찾아올 때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게 하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 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는 요담 왕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담 왕은 웃시아가 강성하여졌을 때 교만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문둥이가 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조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런 요담 왕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2절). 그는 하나님의 전에 한번도 들어가지 아니하였습니다. 혹시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살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요담 왕은 적극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밑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지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요담 왕 밑에 있던 백성들에 관하여 말합니다. “...백성은 오히려 사악을 행하였더라”(2절).

병행 구절인 열왕기하 15:35절에 보면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옛날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산당에서 음란하듯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도 섬겼던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산당을 없애라”(민 33:52-53절 참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담은 왕의 권위를 적극 사용하여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은 음란하듯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비록 요담 왕 자신은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겼지만 산당을 없애지 않아 우상을 섬기는 불씨가 그 나라에 여전히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도 산당과 같은 세속적인 우상의 불씨가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온전히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아하스 왕은 아버지 요담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것을 보며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성경은 아하스 왕의 행적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1절). 그는 바알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처럼 받아 자녀를 불로 태워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산당과 작은 산과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하스 왕이 영적으로 타락하자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낮추셨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19절). 하나님께서 유다를 낮추시자 주변의 나라들이 쳐들어와 유다를 괴롭혔습니다. 아람, 이스라엘, 에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 와서 약탈을 자행했습니다.

이렇게 징계를 받으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법도 한데, 아하스 왕은 고집을 피우며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앗수르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가 것처럼 믿었던 앗수르는 오히려 유다를 괴롭히며 속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때에도 아하스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더 악한 범죄로 치달습니다.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22절). 그는 앗수르가 섬기던 제단과 똑같은 제단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훼파하고 문들을 닫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아하스 왕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곤고할 때, 그 때는 우리의 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입니다. 이 때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입니다. 회개할 때입니다. 곤고할 때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곤고할 때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곤고할 때에 더욱 범죄치 말고 회개하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역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범죄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안 히스기야는 열조의 범죄를 고백합니다(6-9절). 그리고 결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로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10절)라고 말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심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히스기야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5절)라고 명령합니다.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과 마음은 지금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이 되었습니까?

또한 히스기야는 성읍의 귀인들과 함께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 레위사람들을 세워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뒤를 이어 감사제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일이 순서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에게 참 기쁨이 있었습니다. 말씀하기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음을 인하여 히스기야가 백성으로 더불어 기뻐하였더라”(36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을 알아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복케 되어 하늘의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순종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계속 지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오면 잊혀졌던 의무들이 살아나고 새로운 순종이 시작되기 마련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유월절을 지킬 것을 공포하였고, 백성들은 기쁨으로 순종하였습니다. 본래 유월절을 지키는 날짜는 1월 14일 저녁부터이지만 한 달을 늦추어 2월 14일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결케 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백성들도 그 날짜에 모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민 9:10-11절).

아무튼 히스기야의 명령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치된 마음을 갖게 되었고 유월절을 7일 동안 지킨 후에 다시 칠 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거이 지켰습니다(23장). 이 때의 상황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26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지키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자신을 드리면 드릴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날마다 기쁘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길수록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께 자신을 즐거이 드리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회복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것과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히스기야 왕의 열심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알게 된 후 큰 변화를 보입니다. 그들은 여러 성읍에 있던 우상을 깨뜨리며 적어버렸습니다. 또 온 땅에서 산당과 단을 제하여 멸했습니다. 산당은 하나님을 간음하듯 섬기게 만든 불씨였는데, 그것을 이제 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찍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도 깨뜨려 버립니다. 이는 백성들이 그것을 향하여 분향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고, 죄를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죄를 미워하고 있으며 날마다 죄를 버리고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죄와 우상을 미워하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합니다.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사람들의 반차를 정하여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의 일부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각종 번제로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제사장들과 레위사람들에게 필요한 쓸 것을 가져오도록 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로 하나님의 말씀에 힘쓰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왕의 명령이 내리자 백성들은 모든 소산의 처음 것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십일조를 가져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레위사람들을 세워 이 모든 것을 필요에 따라 알맞게 나눠주도록 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합시다.

주님을 위한 열심이 나의 삼킬 때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님을 위한 열심이 나를 삼키게 하소서. ② '단기 선교'를 모든 교구원들이 믿음으로 준비하며 협력할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강대국 앗수르가 쳐들어 왔을 때, 히스기야 왕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앗수르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지만 유다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8절 참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앗수르 왕은 큰 소리를 치며 히스기야를 위협하였습니다. “만일 항복하면 이곳과 같은 좋은 땅에 옮겨 주겠지만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는 죽게 된다. 그 어떤 나라도 앗수르와 싸워서 이길 수 없었다”(10-15절 참조). 이런 시련 앞에서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로 더불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한 천사를 보내사 앗수르의 대군 185,000명을 죽이셨습니다. 이 일로 히스기야 왕이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바벨론 왕은 사람들을 보내서 편지와 예물을 히스기야에게 주며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었습니다. 이 때의 상황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31절). 바벨론 왕이 보낸 사절단 앞에서 히스기야의 마음은 잔뜩 교만해지고 자기 자랑으로 치우쳤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예루살렘과 왕궁에 있는 것을 전부 다 보여주었습니다. 적국의 침략이라는 시련을 믿음과 기도로 이겼던 히스기야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후에 다가온 시험 앞에서는 쉽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모든 일이 형통할 때,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시험을 이기는 길은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기도 제목 / ① 시험과 시련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② 남녀 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된 므낫세와 아몬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반부(1-20절)는 므낫세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므낫세는 부친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각종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또 여호와와 전에 우상을 위한 단을 쌓고 성전의 두 마당에 일월성신을 위한 단을 쌓았으며 인신(人身)제사를 비롯한 사술과 요술을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므낫세를 적국 앓수르의 포로로 붙여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가게 했습니다(11절). 그는 환란을 당한 뒤에 크게 뉘우쳐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고 다시 왕위를 회복하게 됩니다. 므낫세의 일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 각성과 회개를 촉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므낫세와 같은 사악한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다는 것입니다(요일 1:8).

한편 후반부(21-25절)는 므낫세의 아들 아몬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부친의 모든 일을 보고 알면서도 그 부친의 변화된 삶을 따르기보다 부친이 이전에 행한 죄악된 모든 일들을 다시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더욱 범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고 그 신복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24절). 악인의 삶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마음에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 길로 행하는 인간의 완악함이란 얼마나 무서운지요! 만일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면, 모두 죄 가운데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부드러운 심령을 주고 계십니다.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버리고 회개하며 주께 나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② 각 교구를 섬기는 '모든 교역자와 일꾼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건강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남유다 제16대 왕인 요시아의 통치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 왕국은 느밋세와 아몬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고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아의 등장으로 잠시나마 다시 신앙의 길로 돌아서게 됩니다. 요시아는 왕이 된지 8년만에 종교개혁을 단행하여 10년 동안 예루살렘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지역을 두루 다니며 온갖 우상들을 파괴하고 그 땅과 성전을 정결케 했습니다. 그 일을 마친 후에 요시아는 오랫동안 황폐된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고 정화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패역한 민족 가운데 이와 같이 경건한 지도자를 주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오늘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제사장 힐기야는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요시아는 그 율법책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자기 열조 때부터 저질러온 백성들의 죄를 깨닫고 자기 옷을 찢으며 크게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시아의 겸비함을 보고 이미 열조의 죄악으로 인해 예정된 남유다의 멸망의 때를 요시아 이후 세대로 연기하여 주셨습니다(28절). 그 후 요시아는 그 율법책을 모든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다짐하는 언약 갱신의식을 행하였습니다(29-33절). 지금 이 세상은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인 것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습니다(눅 3:9). 그러나 그 심판이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딤후 2:4).

하나님은 말씀을 청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기도 제목 / ① 말씀이 육신 되어 오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② 교회 각 분야에 봉사할 '신실한 일꾼들'을 많이 허락해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요시아가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을 준수한 것과 그 후 애굽과의 전쟁에서 안타깝게 전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아는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근거로 유다 왕국의 신앙회복운동에 더욱 열심을 내었습니다. 본문의 유월절 준수는 그가 행한 신앙회복운동의 절정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된 자리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구속사적으로 볼 때 이 절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사함과 구속함을 입은 것을 의미합니다(히 9:12-14). 요시아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명하여 유월절을 준비케 하고 자신과 함께 백성의 방백들과 레위인의 두목들로 하여금 유월절에 쓰일 제물을 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정한 규례에 따라 최선을 다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하여 사무엘 선지자 시대 이후로 가장 감격스러운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18절).

그런데 요시아의 신앙회복운동 불씨는 그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더 이상 타오르지 못하고 그만 꺼지고 말았습니다(24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유다의 열왕들이 신앙회복을 위한 부흥운동을 여러 번 시도하였지만 모두 일시적인 것에 그치고 완전한 신앙의 회복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드러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된 개혁을 인간들의 마음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죄인들의 악한 마음을 씻어주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부패한 심령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새로워져야 하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하고 그분의 보혈과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일들을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쁜심 뜻'을 좇아 행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요시야의 죽음 이후 희망이 사라진 유다왕국의 종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이후 4명의 왕들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들은 공통적으로 극히 짧은 기간을 통치했으며, 또 통치기간 대부분 불신앙과 죄악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들의 통치기간이 짧았던 것은 당시 유다 주변의 정세가 매우 불안정했기 때문입니다. 즉, 애굽과 바벨론의 패권다툼에서 바벨론이 점점 주도권을 장악해 가고 있었으며 유다는 이러한 주변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멸망하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그들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싫어한 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민의 역사가 여기서 끝이 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 장의 마지막 절인 22, 23절에는 선민국가의 재건을 허락하는 고레스의 조서반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상 한 시기에 세웠던 유다왕국이 비록 불순종과 거역으로 멸망 받았지만 그 민족 자체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유지되다가 바사 왕 고레스 때에 이르러 다시금 본토로 귀환하여 나라의 정통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멸망 받아 마땅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 약속은 장차 이 백성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언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요 1:17).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살게 하소서. ② 이웃을 향한 구제와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 만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으로 교회생활과 관련된 매우 실제적인 교훈을 주는 책입니다. 1장에서 바울은 먼저 에베소 교회가 대외적으로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인 이단에 대한 경계와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목회자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이단 사상을 지닌 거짓교사들과 그들의 거짓 가르침을 엄히 경계하면서 그들과의 불필요한 변론을 피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3-7절). 그 가운데 당시에 구원을 위해서는 율법준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의 잘못에 대해 지적하면서 율법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죄의 기준으로 존재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8-11절).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예수를 핍박하고 복음을 훼방하던 자였으나 거듭난 후에 도리어 복음의 일꾼이 되었음을 간증하고 있습니다(12-17절).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통해 디모데에게 이단에 대한 목회자의 바른 자세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단에 대항하여 복음을 수호하는 목회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피하지 않고 힘써 싸우겠다는 강한 영적인 의지임을 피력하고 있습니다(18절). 그러면서 바울은 당시의 대표적인 거짓교사인 후메나오와 알렉산더를 교회에서 출교한 것을 언급하면서 디모데에게 이단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있습니다(19-20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그것을 전하려는 사람은 바울의 이러한 충고와 도전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힘차게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 굳게 선 자가 복음을 위하여 싸울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게 하소서. ② 각 나라 가운데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바울은 1장에 이어 2장부터는 에베소 교회의 대내적인 현안으로 교회 내부의 분열과 무질서를 바로 잡기위한 일련의 목회지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교회의 기도문제와 남녀 성도간의 질서 문제에 대해 말씀합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며, 특히 국가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 이유는 먼저 교회가 국가와 통치자들의 핍박으로 인해 안정된 신앙 생활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2절, 롬 13:1). 그리고 당시 교회를 핍박하던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한 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가르침(마 5:44)을 실천함으로 저들도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선교적인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3-7절).

이어서 바울은 교회 내의 성도 간의 일치와 질서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8-15절).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 내의 여성도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바울은 여성도들이 아담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올 것과 교회에서 남자의 가르침에 일절 순종함으로 배우는 질서 있는 자세를 가지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은 당시 사회관습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순서와 선악과 범죄에 있어서의 책임의 순서의 문제, 그리고 나아가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도 갖는 질서에 근거하여 주어진 교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질서를 세울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여야 합니다(빌 2:6). 만일 우리 모두가 자기를 부인함이 없이 자기주장만을 내세운다면 교회는 또 다른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눅 9:23).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에 항상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를 부인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기도 제목 / ① 겸손히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②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열심을 회복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교회의 성도간의 일치와 교회 질서의 관건인 교회조직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독(1-7절)과 집사(8-13절)의 자격요건에 관한 지침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초대교회 당시 감독은 가르치는 일과 교인들의 생활 전반을 돌아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사는 교회의 재정과 행정업무를 맡아 보면서 감독의 일을 도왔습니다(행 6장). 이러한 감독과 집사는 교회 질서 확립과 교회사업 전반을 위한 교회 조직에 있어 핵심이 되는 직분자들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독의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우리는 본문에서 그것이 대부분 신앙인격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지도자는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사는 말과 행동이 신중해야 하며, 술을 즐기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비양심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며, 무엇보다도 믿음의 비밀 곧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그런데 직분자의 자격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못되는 죄인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직분과 관련하여 우리 자신에게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오직 우리의 자랑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시켜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갈6:14).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힘써 충성할 뿐입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습니다(딤후 1:12).

기도 제목 / 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게 하소서. ② 단기선교를 통해 전 교회가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장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서 바울은 말세에 나타날 배도현상을 예언하면서 당시 이단 사상에 물들어 있던 자들의 그릇된 교훈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혼인과 식물을 금하는 금욕주의적인 가르침의 잘못된 점을 지적합니다. 바울은 육체적인 쾌락을 무조건 죄로 여겨 혼인을 금하는 영지주의적인 금욕주의자들의 가르침과 구약 율법 중 레위의 의식법에 따라 부정하다고 규정된 짐승의 육식을 금하는(레 11장) 율법주의적 금욕주의자들의 가르침이 잘못된 교훈임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성도들에게 이단의 그릇된 교리에 미혹되지 않도록 올바른 말씀교육과 기도 에 힘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잘못된 교훈은 오늘날 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약의 의식 법 전체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예표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성취되었고, 또 그것의 영적 교훈들은 신약의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승 화됨으로 말미암아 폐지되었다는 것입니다(히 8:13). 따라서 신약성도는 더 이상 구약의 의식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폐하여진 것을 다시 지키도록 하는 거짓 교리에 속박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경건이 무엇 인지 바로 알고 바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롬 12:1-2). 그런데 아직도 우 리는 여전히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 이 같은 사람의 교훈과 전통으로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갈 2:18).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갈 5:1).

기도 제목 / ① 그릇된 교훈을 분별하고 복음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② 단기선교 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만나는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앞 장에서 주의 몸 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교역자들에게 권면을 했던 사도 바울은 이제 본 장에서 교역자들이 다양한 신분과 연령층의 신자들을 어떤 태도로 대하여야 할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를 세분해 보면, 남녀노소에게 대할 태도(1-2절), 과부들에게 대할 태도(3-16절), 장로들에게 대할 태도(17-25절) 등이 됩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특별히 과부와 장로에 관계된 내용에 긴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당시 초대 교회 내에서 이 양자의 처우 문제가 교회 부흥에 중요한 관건이 되었기 때문인 듯 보입니다. 특별히 교역자는 모든 계층의 교인들을 자기 독선적인 권위 취향과 성격아래 속박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모든 계층의 교인들 아래 자신이 겸손히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위치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교역자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동시에 이 땅의 못 심령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이러한 제사장에게 절대 요구되는 것은 거룩과 순종입니다.

이러한 교역자들이 이 땅에 많아지고, 그들이 이러한 중심으로 사역을 해나간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다시 한번 왕성해 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시 기쁨의 전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그처럼 신실한 교역자들을 이 땅에 더 많이 보내주시도록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잘 다스리시는 장로님들이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시는 교역자들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교역자들, 여러분을 대신하여 회개할 자인 것처럼 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교역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로 협력하고 있습니까? 교회 일꾼들을 위해 기도하는 하루이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주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교역자의 삶이 모든 성도에게 본이 되게 하옵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앞장에서 주로 교역자들이 각 계층(연령과 신분)의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관해 목회 지침을 주었던 사도 바울은 이제 본 서신의 결론부에서 해당하는 본 장에서 사랑하는 후배 동역자 디모데에게 꼭 필요한 교훈을 몇 가지 더 전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먼저 종과 상전의 올바른 관계를 언급하고(1-2절), 교역자가 항상 경계해야 할 이단과 물질에 관해 주의를 주고 그 대처법으로 경건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권합니다(3-10절). 그리고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울 것(11-16절), 부자들을 경계할 것(17-19절), 거짓 지식을 피할 것(20-21절) 등을 교훈합니다.

여러분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위로는 상사를 존경하고, 직원을 아끼는 등 성도로서의 사랑을 발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1-2절). 마음에 투기가 생기고 언쟁과 변론이 일어날 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착념치 아니하여 생긴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십니까?(3-5절). 분수를 지켜 만족할 줄을 알면 모든 일에 다툼이 없으며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지나치면 삶의 평강은 깨어지고 혼란이 찾아오게 됩니다(6-10절). 신앙생활 중 우리가 피해야 할 것과 쫓아야 할 것 그리고 싸워야 할 것은 각각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실제로 그러한 것들을 잘 분별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11절)라고 말합니다. 과연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아들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선택해주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며 기쁨이라면, 사람 낚는 어부로 사는 것 역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일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과 믿음을 주옵소서. ② 협력선교사(이집트의 허요셉)가 지속적으로 일하며 구체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역대기의 후반이요, 포로 후기의 역사서라 할 수 있는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까지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본 장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갔던 유다 백성이 바벨론 제국 멸망 이후 본국으로 귀환하게 된 결정적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본 장의 내용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200년 전에 예언한 바 있는 내용(사 44:21-28)의 성취입니다.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포로 되었던 유다 백성이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다는 조서가 내리지고(14절), 이에 감동한 유다 백성은 성전 재건에 필요한 예물들을 풍성히 드리게 됩니다(5-11절).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마음까지 간섭하시어 당신의 계획하신 바를 성취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내려진 유대인 포로귀환 칙령은 이스라엘을 다시 본토로 데려오시겠다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순간도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며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까(1-11절)? 그러나 본토 귀환에 무관심하며 현실 안주에 집착하는 대다수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행여 여러분도 약속의 땅 보다는 죄된 세상에 더 연연하지는 않습니까(5-11절)?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언약의 장소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땅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하늘을 소망하는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기도제목 / ① 오직 영원한 우리의 본향 천국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②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특히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바사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유다 백성이 본국으로 귀환하게 된 사실을 소개했던 앞 장에 이어 본 장에서는 스룹바벨의 주도하에 실시된 제1차 포로귀환(B.C. 537년)에 참여한 자들의 인구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차 포로귀환에 참여한 자들의 자손별(1-20절), 고향별(21-35절), 제사장 출신 등으로 구별하여 각각의 숫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귀환자들의 총합계가 소개됩니다(64-70절). 이처럼 귀환자 명단과 인구수가 매우 자세히 소개된 것은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 각자에게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천국 시민 된 우리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이 같이 명확하게 기억하시며, 하늘 처소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늘나라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본 장의 명단을 보면 1차 포로 귀환 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주한 자들의 명단입니다. 실로 바사에서의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마다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 돌아왔으니 정녕 이들의 이름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할 것입니다. 한편, 느디님 사람들은 원래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길는 미친한 일꾼 출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바사에서 본토로 귀환했다는 사실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43-54절). 그들은 왜 본토로 귀환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어떤 신앙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안락하고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주를 위해 고난당하는 삶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치고 누가 이런 고난을 즐거워한단 말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만이 그런 고난을 기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믿음으로 말씀을 부여잡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영원한 것을 선택하기 위한 희생과 헌신을 허락하소서. ② '총현 선교훈련원 (CMTC)'을 통한 모든 훈련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1차 귀환에 참여할 자들의 명단과 그 수효를 집계했던 앞 장에 이어 본장에는 1차 귀환자들이 벅찬 감격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지금껏 단절되었던 예배를 재개하고 소망하던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무리들은 제일 먼저 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으며(1-6절), 무너진 성전을 복구하기 위한 제반 준비를 마치고 복구 작업을 시작하였고(7-9절), 성전의 기초 지대를 설치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건축의 처음과 나중을 주관해 주시기를 바라며 착공 예배를 드립니다(10-13절). 실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결코 실패하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서 있는 위치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상태에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을 떠나 이 땅의 각종 우상들, 곧 이생의 자랑거리들과 안목의 정욕거리들을 좇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포로 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포로, 물질의 포로가 된 상태입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토로 돌아와서 이방인들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에 착수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으로 생각하고, 성전 중심으로 생활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중심은 오직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와 예수중심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결코 최후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 중심이 주님께 나아가는 하루이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기도 제목 / ① 무너진 마음의 성전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옵소서. ② 농어촌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부흥하여 민족 복음화의 산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혼혈 민족인 사마리아인들이 자신들의 영토권이 위협받는 것을 두려워하여 성전 재건 공사를 방해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더 세분해 보면, 혼합 종교주의자들인 사마리아인들이 종교적 술책이나 뇌물을 통해 유다 민족의 성전 재건 공사를 방해한 사실(1-5절), 학사 에스라의 주도하에 이뤄진 제2차 포로 귀환(B.C. 458년)을 전후하여 실시된 성곽 재건 작업을 훼방하기 위해 아하수에로(B.C. 485-464년)와 아닥사드다 1세(B.C. 464-424년) 통치 기간에 발생했던 사마리아인들의 고소 사건과 그로 인한 공사 중단 사실이 연대기적 서술을 무시하고 소개되고 있습니다(6-24절).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악한 사단의 도전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낙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어진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일종의 전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고 신앙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은, 곧 타락하고 최악 된 세상과의 치열한 전투를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사단의 방해 공작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사단은 때로는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에게 친근한 모습으로, 혹은 두려운 모습으로 접근하여 우리의 양심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1-6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힘으로 싸워서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함으로써 싸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겟세마네에서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됩니다.

기도 제목 / ① 사단의 집요한 공격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② 전 교회학교가 오직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하여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서는 다시 한번 재건 작업이 추진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랜 공사의 중단으로 침체한 유다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두 일꾼(학개, 스가랴)을 등장시키시고, 그들을 중심으로 성전 재건 작업을 재개토록 주도하십니다. 이에 사마리아인들이 지난 번 보다 좀더 적극적으로 방해 하기도 합니다(11-17절).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일꾼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낙망치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되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이며,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 분인가를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행태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의 고비마다 자기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들어 타락한 이 세상을 간섭하시며 책망하십니다. 만약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당신의 일꾼 삼아 부패한 이 세상을 깨우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이랴 대답하겠습니까?(1-2절) 십자가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빛이며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의 그 길을 가야합니다. 이 길은 고난의 길이요, 좁은 길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주님이 걸으셨던 길이요,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복된 길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② 5부 예배를 통해 주의 청년들이 복음에 매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모든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완공된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총독 닛드네 등의 보고를 받은 다리오 왕이 성전 재건 허락에 대한 확인과 더불어 재건에 필요한 물자를 보조해 준 사실(1-12절),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B.C. 516년 2-3월 3일)에 성전 재건을 마치고 봉헌한 사실(13-18절), 그리고 단절되었던 유월절 예식을 거행한 사실(19-22절) 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어떤 방해와 난관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한번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이 거룩한 집념 앞에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과 불신앙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차이는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의 삶은 과연 어떠해야 합니까? 무엇보다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질을 참으로 가치 있고 선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선한 정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고레스왕은 성전 재건 사업의 합법성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성전 재건 작업을 적극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성전 재건 작업이 활발하게 재개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고레스 왕의 호의 때문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 그레스의 마음을 주장하신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이웃과 열방에 이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② 이 땅에 소외받는 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는 에스라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제2차 포로 귀환(B.C.458년) 사건이 소개됩니다. 제사장 출신이자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던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에 당도한 사실(1-10절), 바사 왕 아닥사스다(B.C. 464-424년)가 2차 귀환 명령을 내린 것과 더불어 성전과 예루살렘 재건에 필요한 물품을 원조해준 사실(11-26절) 등이 본 장의 내용입니다. 놀라운 은총 가운데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된 에스라의 제사장 신분이 강조된 것은 귀환한 유다 백성에게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것이 여호와 신앙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역설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정립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또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최대 과업이요,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약속을 신실히 지키실 뿐만 아니라 택한 백성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가르쳤습니다. 과연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실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신실했던 에스라는 바사 왕 아닥사스다의 신임을 받았고, 또한 그를 감동시켰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불신자를 감동시킬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11-26절)?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포로 귀환 사역을 완수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계획과 뜻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복음과 교회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진리를 깨닫고 이웃에게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1 과

예수님께 드릴 예물

● 찬송/ 404장(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 본문/ 시 116:12

들어가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이 설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할 내용은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설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참되게
표현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과
거기에 따라야 할 우리의 심정을 말해줍니다.

이번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물면서

1. 본문 관찰

시편 116편을 중심으로 아래의 관찰 질문을 풀어보십시오.

1) 3절: 시편 기자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까?

사망의 줄과 음부의 고통을 만나 과 속에 있었다.

2) 4절: 그런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와 이름으로 했다

3) 8절: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에게 베푸신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에서, 내 눈을 에서, 내 발을
 에서 건지셨나이다”

보기) 넘어짐, 눈물, 사망, 지옥

4) 12절: 은혜를 받고 회복된 후에 시편 기자는 어디에 마음을 쓰고 있습니까?

5) 눅 17:17: 받은 은혜를 인해 감사하는 일을 예수님께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설교 읽고 서로 나누기

- ◆ 「예수님께 드릴 예물」의 설교문을 읽으십시오.
- ◆ 읽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5분 이상 깊이 묵상하십시오.
- ◆ 설교문을 한 단락씩 끊어 읽으면서 질문을 풀어보십시오.

1)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단락을 읽고

질문)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와 선물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네 가지만 기록해 보십시오.

답) ①

②

③

④

2) '우리가 드려야 할 예물(1)'의 단락을 읽고...

질문)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물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을 하는 것과 이웃을 하는 것

3) '우리가 드려야 할 예물(1)'의 단락을 읽고...

질문) 변화된 바울의 삶을 예로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할 또 다른 예물인 헌신은 어떠한 헌신이어야 하는지 말해보십시오.

답)

4) '우리가 드려야 할 예물(2)' 의 단락을 읽고...

질문) 동방박사들을 예로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할 예물
인 충성은 어떠한 충성이어야 하는지 말해보십시오.

답)

5) '우리가 드려야 할 예물(2)' 의 단락을 읽고...

질문)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또 다른 예물은 재능입니다. 여
러분은 어떤 재능을 지금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있습니까?

답)

6) 「예수님께 드릴 예물」의 설교 전체를 기억하며...

질문) 이번 설교를 읽고 공부하면서 깨달은 바를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답)

나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랑과 여러분 자신, 모든 충성과 모든 재능을 예수님께 바치십시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특권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의 질병과 연약함도 예수님께 바치십시오. 모든 것을 예수님께 바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노래하십시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복락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크신 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모든 사랑과 여러분 자신, 모든 충성과 모든 재능을 예물로 바치십시오. 여러분의 예물을 받아달라고 주 예수님께 간구하십시오. 아멘.

1. 감사 /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 간구 / 주께서 주신 은혜의 크고 놀라움을 매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치 않는 악한 생활에서 속히 벗어나 우리의 전부를 드려 헌신케 하옵소서.
3. 구역 기도 /

제목:

피 :

제 2 과 ●●●●●●●●

바울과 루디아

● 찬송/ 417장(큰 죄에 빠진 나를) ● 본문/ 사도행전 16:6-15

들어가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이 설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할 내용은 복음을 전하여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자신의 계획에 따라 일을 진행시키신다는 진리입니다.

이번 설교는 바울이 아시아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아 빌립보에 가서 선교하게 된 과정을 자세히 말해 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된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과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깊이 감동되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촉구합니다.

이번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맡기며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삶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머물면서

1. 본문 관찰

행 16:6-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래의 관찰 문제를 풀어 보십시오.

1) 6-7절: 바울의 선교계획과 하나님의 간섭을 짚지어 연결하십시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함 ·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심 · 성령이 못 하게 하심

2) 9절: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보게 된 환상은 무엇입니까?

3) 10절: 바울은 위의 환상을 어떤 뜻으로 해석했습니까?

“□□□이 마게도나 사람들에게 □□을 전하라고 우리를
□□□ 줄로 인정함이라”

4) 13절: 바울 일행은 어떤 장소를 찾다가 복음을 들을 사람들을 만나
게 되었습니까?

□□□

5) 14절: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여인은 누구였습니까?

□□□□ 성의 자주(紫紬) 장사로서 하나님을 □□ 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

2. 설교 읽고서로 나누기

- ◆ 「바울과 루디아」의 설교문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 ◆ 읽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5분 이상 조용히 묵상하십시오.
- ◆ 설교문을 한 단락씩 끊어 읽으면서 질문을 풀어보십시오.

1) '하나님의 손에 이끌린 바울'의 단락을 읽고...

질문) 바울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기까지 각각의 과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셨는지 아래의 표를 보면서 말해 보십시오.

답)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

♡ 하나님의 간섭()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는 바울

♡ 하나님의 간섭()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바울

♡ 하나님의 간섭()

빌립보에서 기도처를 찾는 바울

♡ 하나님의 간섭()

루디아 일행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

♡ 하나님의 간섭()

루디아의 회심과 변화된 삶

2) '하나님의 손에 이끌린 루디아'의 단락을 읽고...

질문) 루디아의 신앙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루디아를 바울에게로 이끌어 복음을 듣게 하셨는지 말해 보십시오.

답) 루디아의 고향 및 거주지-

루디아의 직업 및 사업장소-

루디아가 바울을 만난 곳-

바울을 만날 때 루디아의 영적 상태-

나가면서

1990년 12월 15일 (토요일) 1990년 12월 15일 (토요일) 1990년 12월 15일 (토요일)

(토요일) 1990년 12월 15일 (토요일) 1990년 12월 15일 (토요일)

아시아 사람들 중에서 루디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전파한 맨 처음 사람이었습니다. 아시아의 첫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과 루디아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복음은 유럽과 아시아로 퍼져나갔습니다. 바울과 루디아! 놀라운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루디아를 준비해 두셨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루디아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 계획으로 여러분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불러 모으신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루디아의 마음처럼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만 하면, 이 교회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구로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990년 12월 15일 (토요일) 1990년 12월 15일 (토요일) 1990년 12월 15일 (토요일)

1990년 12월 15일 (토요일) 1990년 12월 15일 (토요일) 1990년 12월 15일 (토요일)

(토요일)

1. 감사 / 이방인이었던 저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믿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충현교회에 세계선교에 대한 사명을 주시고 단기선교를 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 간구 / 저희들의 선교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게 하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루디아처럼 변화되어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3. 구역기도 /

제 3 과 ●●●●●●●●

의의 열매

● 찬송/ 209장(주의 말씀 받은 그 날) ● 본문/ 잠언 11:30

들어가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이 설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할 내용은
의인은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며
그것이 인생의 최고 사명이요 보람이라는 진리입니다.

이번 설교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의인의 가장 중요한 열매요
의인의 가장 지혜로운 열매며
의인이 믿음을 실천한 결과 맺는 열매라고
세 가지 차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열매가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번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열매를 점검해 보고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머물면서

1. 본문 관찰

잠 11:30을 중심으로 아래의 관찰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1) 30절 : 관련 있는 것끼리 서로 연결해 보십시오.

- | | |
|------------|---------------|
| · 의인의 열매 · | · 마치 생명나무와 같다 |
| · 지혜로운 자 · | · 사람을 얻는다 |

2) 눅 19:10 : 예수님의 생애의 최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인자의 온 것은 자를 찾아 하려 함이니라”

3) 막 16:15 :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을
 하라”

4) 딤후 4:1-2 : 영혼을 구원하려는 사람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5) 단 12:3 : 영혼 구원에 힘쓴 사람들이 누릴 영광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과 같이
 비취리라”

2. 설교 읽고서로 나누기

- ◆ 「의의 열매」의 설교문을 천천히 한 번 읽으십시오.
- ◆ 읽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5분 이상 조용히 묵상하십시오.
- ◆ 설교문을 한 단락씩 끊어 읽으면서 질문을 풀어보십시오.

1) '어떻게 살아야 할까?'의 단락을 읽고...

질문) 아래의 왼쪽에 있는 것들과 오른쪽에 있는 것의 중요성을 비교해보고 왜 영혼이 제일 귀한지 말해보십시오.

답) 돈, 건강, 성공과 출세, 명예 <.....> 영혼

2) '가장 중요한 열매'의 단락을 읽고...

질문) 아래의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답)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신 목적은?

인생의 최고 사명은?

3) '가장 지혜로운 열매'의 단락을 읽고...

질문) 어떤 점에서 영혼 구원은 의인의 가장 지혜로운 열매입니까?

답) ①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사람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서

② 영혼 구원을 방해하는 마귀가 지혜롭기 때문

③ 죄인들은 지혜로워져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서

④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비밀이요 이 비밀을 깨달은 자만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드리기에

4) '믿음을 실천하는 삶의 열매'의 단락을 읽고...

질문) 다른 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실천해야 할 믿음은 어떤 내용입니까? 두 가지만 골라 보시오.

답) ① 사단과 자아의 권세에 맞서 싸우는 것

②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는 것

③ 우리 개인이 누리고 있는 축복을 만끽하는 것

④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다는 것

5) 「의의 열매」라는 설교 전체를 묵상하며...

질문) 오늘 설교를 읽고 공부하면서 깨달은 바를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답)

나가면서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은 참된 신자의 삶입니다. 요한 복음 1장은 제자들이 기쁜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즉각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안드레는 자기의 형제인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고,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누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즐거움에 빠져 생활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직장 일입니까? 학교생활, 건강 유지, 음식 문제, 혹은 의복 문제입니까? 아니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까?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무엇이 의인의 열매입니까?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은 영혼 구원이 의인의 열매라고 말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아멘!

기도

1. 감사 /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말씀 안에서 교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2. 간구 / 저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나무가 되게 하여 주셨으니, 그 은혜를 늘 공급받아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저희들의 모든 삶이 다 쓰이게 하옵소서.
3. 구역기도 /

제목 :

본문 :

Blank area for sermon notes.

아이들을 위한

★ 155쪽 (7월)에 모든 아이들을 위한 ★ 155쪽 (7월)에 모든 아이들을 위한 ★

아이들을 위한

우리는 아이들을 위한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위한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위한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위한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위한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위한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위한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위한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위한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위한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위한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위한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위한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위한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위한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위한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위한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위한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위한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위한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위한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위한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위한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위한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제 4과

이 어쩐 일이나?

● 찬송/ 172장(빈들에 마른 풀같이) ● 본문/ 사도행전 2:7-12

들어가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이 설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할 내용은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놀라운 부어짐이 그 당시에 어떤 의미였고,
오늘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설교는 오순절 날의 성령 강림이
신약시대 교회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놀라운 사건이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부를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은혜를 힘입어 복음 전파와 선교에 더 힘써
정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머물면서

1. 본문 관찰

행 2:7-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래 관찰 질문을 풀어보십시오.

1) 2-3절 :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난 일을 정리해 보십시오.

귀에 들린 일 -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같은

눈에 보인 일 - 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

2) 4절 : 다락방에 모여 있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 으로 말하기를 시작 하니라”

3) 7-8절: 이를 지켜본 사람들의 첫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4) 13절: 일부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 설교 읽고 서로 나누기

- ◆ 「이 어쩐 일이나」의 설교문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 ◆ 읽은 내용을 기억하면서 5분 이상 조용히 묵상하십시오.
- ◆ 설교문을 한 단락씩 끊어 읽으면서 아래의 질문을 풀어보십시오.

1) '구원과 약속이 성취됨'의 단락을 읽고...

질문)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

☐ 아계심을 확증해줍니다. 아래의 순서를 따라서 설명해 보십시오.

답)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시면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뒤 오십일 후에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므로...

2) '구원과 약속이 성취됨'의 단락을 읽고...

질문) 오순절 성령강림을 통해서 성취된 약속의 말씀을 두 가지만 간략하게 적어보십시오.

답)

3) '능력이 부어짐'의 단락을 읽고...

질문)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까?

답) ① 방언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②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③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해서

4) '능력이 부어짐'의 단락을 읽고...

질문) 성령을 받은 후 제자들이 얼마나 강력한 복음증거자들로 변화되었는지 말해 보십시오.

답) 성령을 받은 후 제자들은 매우 강력한 복음증거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증거했습니다.

5) '성령을 받으라'의 단락을 읽고...

질문) 오순절 성령강림을 보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

6) 「이 어찌 일이냐」의 설교 전체를 기억하며...

질문) 이번 공부를 통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을 한 가지씩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답)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오순절 날에 얼마나 놀라운 약속을 이루어 주셨는지요! 바벨탑에서 인류는 말이 나뉘어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에 인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언어를 다시 찾았습니다. 온 세상에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은 땅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번 주일은 성령강림주일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혀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게로 오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가장 선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무릎을 꿇으십시오.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을 주시며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1. 감사 / 오늘도 말씀 안에서 교제케 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 간구 / 연약한 저희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을 부으사 이 악한 세대 속에서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하게 하옵소서. 총현교회의 모든 단기선교 사역이 성령의 능력으로 진행되게 하옵소서.
3. 구역 기도 /

제목 :

본문 :

1. 주일설교 노트
 2. 5월 30일
 3. 제목 :
 4. 본문 :
 5. 주일설교 노트
 6. 5월 30일
 7. 제목 :
 8. 본문 :
 9. 주일설교 노트
 10. 5월 30일
 11. 제목 :
 12. 본문 :
 13. 주일설교 노트
 14. 5월 30일
 15. 제목 :
 16. 본문 :
 17. 주일설교 노트
 18. 5월 30일
 19. 제목 :
 20. 본문 :
 21. 주일설교 노트
 22. 5월 30일
 23. 제목 :
 24. 본문 :
 25. 주일설교 노트
 26. 5월 30일
 27. 제목 :
 28. 본문 :
 29. 주일설교 노트
 30. 5월 30일
 31. 제목 :
 32. 본문 :
 33. 주일설교 노트
 34. 5월 30일
 35. 제목 :
 36. 본문 :
 37. 주일설교 노트
 38. 5월 30일
 39. 제목 :
 40. 본문 :
 41. 주일설교 노트
 42. 5월 30일
 43. 제목 :
 44. 본문 :
 45. 주일설교 노트
 46. 5월 30일
 47. 제목 :
 48. 본문 :
 49. 주일설교 노트
 50. 5월 30일
 51. 제목 :
 52. 본문 :
 53. 주일설교 노트
 54. 5월 30일
 55. 제목 :
 56. 본문 :
 57. 주일설교 노트
 58. 5월 30일
 59. 제목 :
 60. 본문 :
 61. 주일설교 노트
 62. 5월 30일
 63. 제목 :
 64. 본문 :
 65. 주일설교 노트
 66. 5월 30일
 67. 제목 :
 68. 본문 :
 69. 주일설교 노트
 70. 5월 30일
 71. 제목 :
 72. 본문 :
 73. 주일설교 노트
 74. 5월 30일
 75. 제목 :
 76. 본문 :
 77. 주일설교 노트
 78. 5월 30일
 79. 제목 :
 80. 본문 :
 81. 주일설교 노트
 82. 5월 30일
 83. 제목 :
 84. 본문 :
 85. 주일설교 노트
 86. 5월 30일
 87. 제목 :
 88. 본문 :
 89. 주일설교 노트
 90. 5월 30일
 91. 제목 :
 92. 본문 :
 93. 주일설교 노트
 94. 5월 30일
 95. 제목 :
 96. 본문 :
 97. 주일설교 노트
 98. 5월 30일
 99. 제목 :
 100. 본문 :

남성도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구역공과	제4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남성도구역공과' 는 '구역예배공과' 중 '제4과' 를
해당공과로 삼아서 공부하기로 합니다.

이 어쩐 일이나? (행 2:7-12)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큰 소리가 임했고, 그 다음에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몰려갔고, 갈릴리 사람들이 여러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노동자들이었기 때문에 고등 교육을 받거나 세계 여행을 해 볼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스어로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들의 나라 말로 유창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인들은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다 기이히 여기며 서로 물었습니다. “이 무슨 일인가?”

갈릴리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

여러분이 아는 어떤 사람이 한 번도 공부해보지 않은 외국어를 유창하게 말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령, 여러분이 한국어와 아랍어를 말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일이 있어서 수단에 있는 친구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친구는 아랍어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혀 기대하지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한국말을 유창하게 말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도 갈릴리 사람들이 각국 방언으로 유창하게 말하는 것을 지켜보며 똑같은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그 순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의 한 사건, 곧 성령의 부어짐을 목격하고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오순절이 새로운 일들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는 하늘로부터 강림하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120명 위에 임하셨습니다. 놀랍고 새로운 이 날에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심지어는 그들의 혀까지도 자신의 놀라운 능력

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놀랍고도 기이한 성령을 처음으로 체험한 일이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신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순절 날에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것을 지켜 본 사람들은 ‘다 놀라 기이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무슨 일인가?”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구원과 약속이 성취됨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께서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 손으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행 2:32-33).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에 대한 약속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바로 이 일을 듣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자들 가운데 내주시는 성령님의 외적인 증거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위하여 단 한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는데, 그 결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셨고, 그 본체의 형상이 되셨으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 1:3).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늘 보좌에서 약속된 성령을 받아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 29절은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이사야 28장 11절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 놀라운 예언이 오순절 날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령께서는 남자와 여자에게 모두 임하셨고 하나님의 말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마

3:11). 바로 이 일이 오순절 날에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 일이 오늘 본문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부어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막 16:15-16).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도 강조되어 있는 예수님의 이 명령, 곧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명령은 예수님 없이 성취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요 14:12). 오순절 이후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고, 영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등 신자들이 행한 일은 그 범위와 효과에 있어서 더 큰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갈릴리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여러 방언으로 말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 그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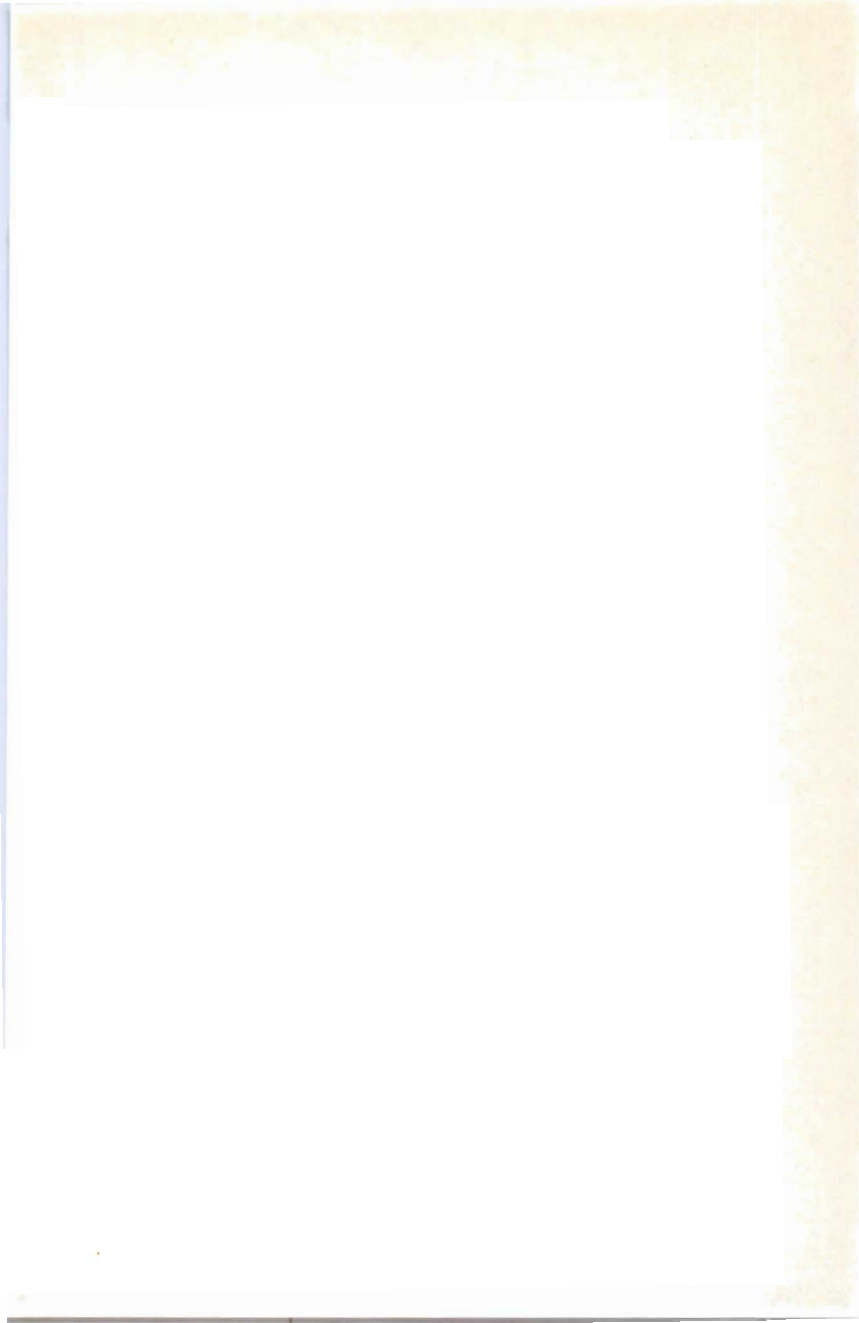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께서 연약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신학을 공부해 본 적 없는 베드로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삼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 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고전 1:20-21).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사 복음을 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고전 1:27-29)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오순절 날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행 2:21). 갈릴리 사람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놀라운 소식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에 관한 구약의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임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에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사 자신의 증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롬 10:13).

“복된 장마비가 있으리라.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오리라. 하늘에 계신 구주로부터. 우리는 복된 장마비가 필요하네. 은혜의 단비가 우리 주변에, 우리 앞에 떨어지는 것이 필요하네. 우리에게 복된 장마비를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오소서. 오, 위대하신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사 위대한 일을 이루소서. 우리 영혼의 소원을 만족케 하소서. 우리가 믿사오니 당신의 거룩한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당신의 성령을 보내주소서. 천국의 바람과 불로 우리의 마음과 혀를 어루만져 주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주가 되심을 증거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오순절 날에 얼마나 놀라운 약속을 이루어 주셨는지요! 바벨탑에서 인류는 말이 나뉘어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에 인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언어를 다시 찾았습니다. 온 세상에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은 땅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강림주일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혀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여러분의 삶을 가장 선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무릎을 꿇으십시오.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을 주시며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가정예배 안내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 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충현의 만나 · 2004년 5월호 · 발행인 / 김성관 · 편집인 / 노광현

· 집필진 / 만나 : 위건량(1-7일), 김익환(8-14일), 임현덕(15-22일),

하종철(23-31일) 목사

· 구역예배공과 : 이태복 목사

·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출]
